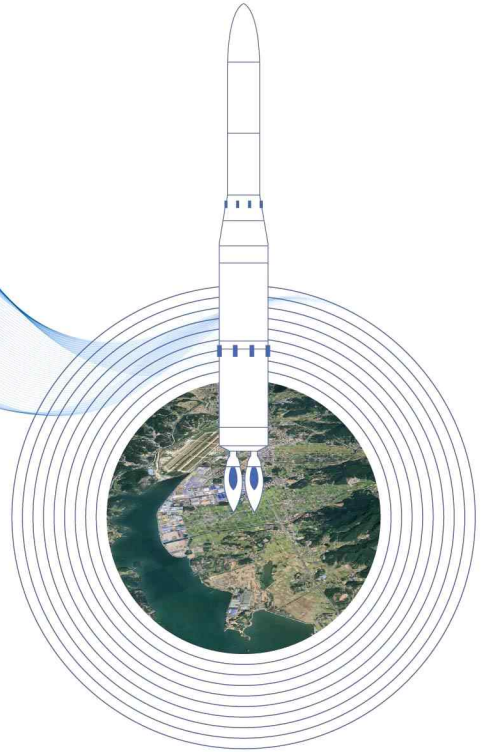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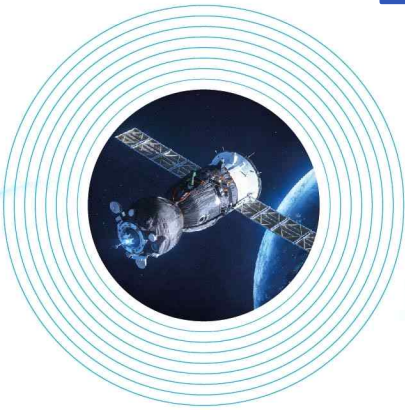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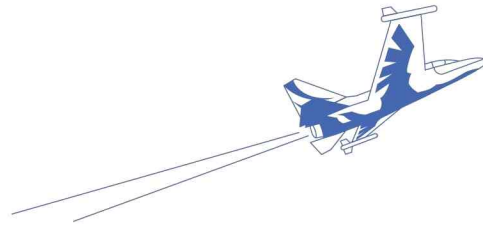


2023. 8월

우주항공산업 동향



우주항공과 미래도약
함께 합니다.



우주항공산업 동향

관 내 동향

사천시, 항공MRO 사업 추진현황 설명회 개최

- 사천시는 7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동식 시장, 경남도의원, 사천시의원, 항공관련 조직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MRO 사업 추진현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 발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석자들은 사천시 항공MRO 추진상황과 한국항공서비스(KAEMS)의 사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내외 항공MRO 사업 전망 분석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현재 사천시와 경남도는 1,759억원을 투입해 항공MRO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경남 서부지역을 MRO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천시는 국토부 MRO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근거하여 지역별 특화분야 집중 육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는 한편 항공MRO 산업단지 조기 완공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 사천시민 및 경남도민 250여 명이 27일 국회로 상경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특별법 조기제정 경남도민 촉구대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 집회는 사천시의회, 사천상공회의소, 재경 경남도민회, 재경 사천시 향우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이는 특별법이 4월 국회 소관위에 회부된 이후 현재까지 소위조차 열리지 않는 등 거듭된 파행으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들은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경남도민과 사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 한편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의 당위성과 특별법 조기 통과를 요청했으며, 박완수 경남지사와 함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KAI-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 협력 강화 위해 맞손

- KAI와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이 우주탐사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천문연은 천문학과 우주과학 연구로 국내 우주탐사 역량을 높이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현재 KAI가 총괄 개발 중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 장착될 우주용 관측 카메라를 제작 중이다.
-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주과학 공동연구 및 기술 개발, 공동장비 활용 등을 통해 우주탐사 미션 기획, 탐사선 개발, 탐사 시스템의 국산화 품목 개발 등에 협력한다.
- KAI는 “우주탐사는 2045년 우주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의 5대 우주개발 미션 중 하나”라며 “KAI의 탑재체, 위성 플랫폼 역량에 천문연의 전문성을 더해 향후 착륙선, 행성 탐사선 등 우주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이즈항공, DMI와 미국 내 수소드론 기술 지원 계약

- 하이즈항공이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하 DMI)과 미국 내 DMI의 수소연료전지 드론(DS30W)에 대한 기술지원, 수리·정비 업무 및 물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 DMI에서 운영 중인 드론은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적용한 세계 최초 양산형 드론으로 2시간 가량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운영 범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하이즈항공의 자회사인 하이즈복합재산업이 위탁 조립 및 생산하고 있다.
- 하이즈항공 관계자는 “하이즈복합재산업(HCI)은 드론의 개발 및 생산에 집중하고, 올해 초 미국에 설립한 하이즈USA를 통해 드론 사업의 운영 노하우 및 물류에 대한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내 동 향

경남도, 정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건의

- 2일 경남도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 등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를 방문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전담조직 설치를 건의했다.
- 이는 정부가 세종시 건설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립하고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을 설치한 것과 같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전담조직 설치와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 경남도와 사천시는 교통, 문화, 교육여건 등 도시의 전반적인 기능과 정주 여건을 강화해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우주항공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계획 중이다.
-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가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와 연계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또한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사, 국회 과방위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 박완수 경남지사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특별법은 과방위에서 심의가 안 돼 표류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도 민주당 의원이 모두 불참하면서 법안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 박 지사는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에 국가 발전 전략에 있어 필수 요건”이라며 “330만 경남도민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주강국의 비전을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우주항공청이 개청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경남은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임시청사와 본 청사 후보지를 선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구인력의 정주 여건을 확립하는 등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 경남도가 정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조성 및 발맞춰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 우주산업은 제품의 연구개발, 시험인증 등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우주 환경에서 검증한 이력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초기진입 장벽이 높다.
- 경남도는 도내 우주기업에 5억 원을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시제품 제작, 우주환경시험 인증·특허, 연구개발 기획, 전시회 참가·바이어 발굴 등 국내외 네트워킹, 스타트업 육성 등이다.
- 사업 참여 기업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17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아 선정평가 등을 거쳐 9월 중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남도-KIC중국-창원·진주·김해 강소특구 업무협약 체결

- 경남 소재 기술창업기업의 중국 진출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 KIC중국, 창원강소특구(한국전기연구원), 진주강소특구(경상국립대), 김해강소특구(인제대)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력 분야는 도내 해외 진출 유망 스타트업 발굴, 중국 내 스타트업 협력 기업·기관 발굴 및 연계, 해외지사화 지원, 해외 박람회 연계 지원, 해외 진출 기업 추적 관리 등이다.
- KIC중국은 2016년 베이징에 설립된 과기부 산하 비영리 정부기관으로 창업교육 및 산업시찰, 산업·지역별 투자유치, 창업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기술창업의 중국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 경남도는 전국 14개 강소연구개발특구 중 전국 최다인 3개 특구를 보유한 강점을 살려, 특구별 특화산업인 기계융합산업(창원), 항공우주부품 소재산업(진주), 의생명 의료기기산업(김해)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국 내 동 향

과기부 우주, 심해에서 활용할 극한소재 개발 지원

- 과기부가 우주, 심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첨단소재 개발을 위해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이용자 협의회’를 구성했다.
- 극한소재는 극한환경에서 사용하는 국가전략 소재로 우주항공, 가스터빈, 액체수소 저장 등에 활용된다.
- 과기부는 최근 급증하는 소재 수요에 대응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3,096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초고온, 극저온, 특정 극한환경 등을 구현하고 시험평가·시범생산 등 실증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 이를 위해 향후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하게 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이용자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 협의회는 8월부터 장비의 구축 타당성, 운용계획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거북선 최초 출전·승전한 7월 8일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

- 내년부터 매년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기념되며, 오는 11월부터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이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으로 확대된다.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공포돼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방위산업의 날'을 제정한 것은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과 방산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날짜를 정했다.
- 선정된 날짜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이던 1592년 5월 29일(양력 7월 8일) 사천해전에 최초로 거북선 2척을 실전에 투입하여 왜선 13척을 격파한 날이다.
- 한편 보증과 공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대상이 국방과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구기관 등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독일 방산 수출승인 절차, 수출 후 신고로 간소화

- 독일산 방산 부품 수입과 해당 부품이 포함된 국산 무기체계 수출에 대한 독일 정부의 수출 승인 절차가 사후 신고로 간소화된다.
- 현재는 독일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기타 수출대상국으로 분류해 자국산 부품 등의 수출에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고 있어 통상 6~12개월 만에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 그러나 오는 9월 1일부터 독일 업체는 독일 당국이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이 수출 후 신고만 하면 된다.
- 국내 업체가 독일산 부품을 탑재한 무기체계를 제3국에 수출할 때도 EU, 나토 국가와 준나토국가로 분류되는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일본에는 간소화 절차가 적용된다.

해 외 동 향

나사, 우주 전문 OTT '나사 플러스' 출시

- 미국 항공우주국(이하 나사)이 올해 안에 자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나사 플러스(NASA+)'를 출시한다.
- 나사는 출시 예고와 함께 예고편을 공개해 '나사 토크(NASA TALKS)', '더 컬러 오브 스페이스', '나사 키즈' 등 나사 플러스에서 볼 수 있을 예정인 콘텐츠를 소개했다.
- 특히 미국 달 탐사 계획에 따라 내년 11월에 발사 예정인 유인 달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와 관련한 콘텐츠도 제공될 예정이다.
- 나사 플러스는 우주선 발사 중계와 우주 관련 다큐멘터리 등을 광고 없이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며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다른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록히드마틴, 나사 화성 탐사 원자력 로켓 개발업체 선정

-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나사의 화성 탐사용 원자력 추진 로켓(NTR) 개발업체로 선정됐다.
- 나사와 미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2021년부터 4억 9,900만 달러(한화 약6,300억 원)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드레이크(DRACO)'를 통해 원자력 추진 로켓을 개발 중이다.
- 원자력 추진 로켓은 기존의 화학로켓 대비 최소 3배 이상 효율적으로 특히 화성에 가는 시간을 기존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 또한 우주여행에 필요한 화물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우주 방사선 노출도 최소화할 수 있어 나사가 계획 중인 화성 탐사에 필수적인 기술로 꼽힌다.
- 록히드마틴은 2027년 시험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주선은 약 700~1,996km 사이의 고도에서 궤도를 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일	2023. 8. 11.(금)	보고일	2023. 8. 14.(월)
부서명	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	담당자	김난주(055-831-3473)